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문4]

[앞부분의 줄거리] 오 일병과 ‘나’는 기동 훈련에 대비하여 참호를 파다가 철사에 감긴 사람의 유골을 발견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을 모셔온다. 그와 함께 유골을 수습하여 간단하게 장례를 지낸 뒤 노인을 배웅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전쟁 중에 종적을 감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를 떠올린다.

첫 휴가를 받아 집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다. 밤새 완행열차를 타고 내려와 집에 닿자마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던 나는 ㉠그득한 밥상을 보고 놀랐다. 아이들처럼 연신 수줍은 웃음을 흘리며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았다.

참, 이상도 하지. 내가 온다는 말에만 정신이 팔려 깜박 잊고 있었는데, 글썽 오늘이 그 양반 생일이로구나. 누구 말예요?

느그 아버지 말이다.

얼결에 그렇게 말해 놓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황황히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도대체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어머니. 그 애긴 다시 꺼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진즉 죽은 사람이예요. 아니, 설사 살아있더라도 우리한테는 그게 백번 나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애야. 아직 살아 계시지 누가 안다고 그래.

죽었어요. 그런 줄만 아시라니까요!

그래도……살아 있기만 하든야 언제고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기어코 폭발하고야 말았다.

어떻게요? 이제 와서 대체 어떻게, 어떤 꼬락서니를 하고 서로 만난다는 말입니까, 네?

입에 씹히는 대로 나는 내뽠고 있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다.

아,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빌어먹을 놈의 이, 이……주둥아리가 방정이지 뭐이다냐.

어머니는 훌쩍 등을 돌리고 앉았다. 그리고 주섬주섬 저고리襟을 끌어 올리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외아들 앞에선 좀체 눈물을 비치지 않던 그녀였다. 아무리 앓아누웠을 때라도 입을 앙다물고 애써 태연해 보이던 그녀가 쭈뼛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음을. 내 유년 시절의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사내의 눈빛을, 그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은 상흔으로만 찍혀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런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워 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자꾸만 자꾸만 밀려 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스물다섯 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기어,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밥상을 받아 놓은 채 나는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 가닥이 국그릇 속에서 멀겁게 식어 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며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멘 소총이 수통과 부딪치며 켜켜켜켜 소리를 냈다. 나는 어깨로부터 전해 오는 그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과 확실한 중량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열려 있는 총구의 속성을, 그 냉혹함을, 또한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강하게 뿌리를 틀고 앉아 있는 소름 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까우웁. 까우웁.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길 옆 밭고랑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구물거리고 있었다. 온 세상 가득히 내려 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구물거리며 놈들은 그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누우며 낮은 신음을 토해 내고 있었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서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거리는 날갯짓과 구물거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머리 위로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함박눈이었다.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세상을 가득 채워 버리려는 듯이 밭고랑을 지우고, 밭둑을 지우고, 그 위에 선 내 밭목을 지우고, 구물거리는 검은 새 떼를 지우고, 이윽고는 들판과 또 마주 바라보는 거대한 산의 몸뚱이마저도 하얗게 하얗게 지워 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 와 소반 위에 떠서 올려놓곤 하던 바로 그 사기대접의 눈부시도록 하얀 빗깔이었다.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문 1】 ㉠~㉤을 등장인물의 심리와 연결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변함없는 기다림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 : ‘나’가 느끼는 전쟁의 냉혹함과 압박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 : ‘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전쟁의 희생자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 :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나’의 심정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각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 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칠 년인걸…….”

하고 획 문밖으로 나가 버렸다.

<중략>

이때, 변산(邊山)에 수천의 군도(群盜)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 명이 천 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 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도둑이 된단 말이요?”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樂)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안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 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삼십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大驚)해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훔쳐졌으나, 한 사람이 백 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백 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 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을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흠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이천 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쏴서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 박지원, ‘허생전’ -

【문 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제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소설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갈등 원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영웅적 면모를 가진 인물을 내세워 당대 지배층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양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군도들과의 대화를 통해 군도가 된 이유가 땅과 처자식이 없어서라는 내용은 작가가 당대 민중의 삶이 피폐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④ 허생이 군도를 데리고 가 빈 섬을 개척한 것을 통해, 작가는 조선의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글 읽기의 목적은 임신양명이고 이는 그녀의 실용적 학문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② ㉡ :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업을 허생에게 추천하고 있다.
- ③ ㉢ : 글 읽기에 대한 허생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으로 허생은 도를 이루기 위해 글 읽기를 한 것이다.
- ④ ㉣ : 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 부분으로 이 시대에도 상업 자본에 대한 근대적 자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10】 ㉡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루하습(上漏下濕)
- ② 삼순구식(三旬九食)
- ③ 가도벽립(家徒壁立)
- ④ 권토중래(捲土重來)

【문11】 다음 중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것 중에서 올바른 것은?

< 보기 1 >

‘-ㅁ/-음’에 대하여

- 명사형 어미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어 주어를 서술하며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 접미사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킨다.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없고, 관형어가 올 수 있다.

< 보기 2 >

- ㉠ 그의 선조들은 불우한 삶을 살았다.
- ㉡ 겨울이어서 노면에 얼음이 자주 얼었다.
- ㉢ 영화는 깊은 잠<sup>1</sup>을 잠<sup>2</sup>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 진행자가 크게 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

- ① ㉠의 ‘삶’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다.
- ② ㉡의 ‘얼음’은 ‘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 ③ ㉢의 ‘잠’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고, ‘잠’의 ‘-음’은 접미사이다.
- ④ ㉣의 ‘웃음’은 ‘크게’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접미사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2~문14]

백옥섬 좋은 흙에 종종이 심어 내니  
 춘삼월 지난 후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저허하네  
 정정한 저 기상을 여자밖에 뉘 벗할고  
 옥난간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을 반개하고 차환\*을 불러 내어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수(繡)상자에 담아 놓고  
 여공(女工)\*을 그친 후에 중당에 밤이 깊고 납촉이 밝았을 제  
 나옴나옴 고초 앓아 흰 구슬을 갈아 마아  
 빙옥(氷玉) 같은 손 가운데 난만이 개여 내어  
 파사국\* 저 제후의 홍산궁을 펼쳤는 듯  
 심궁 풍류 절고에 홍수궁을 마아는 듯  
 섬섬한 십지상(十指上)에 수실로 감아 내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미미히 숨의는 양  
 가인의 얇은 뺨에 홍로를 끼쳤는 듯  
 ㉡단단히 봉한 모양 춘나옥자 일봉서를 왕모에게 부치는 듯  
 춘면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 놓고  
 옥경대를 대하여서 팔자미\*를 그리려니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붙었는 듯  
 손으로 우회려니 분분히 흩어지고  
 입으로 불러 하니 섞인 안개 가리었다  
 여반(女伴)을 서로 불러 낭랑이 자랑하고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 잎의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이 아니 옹을손가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의홍상 일여자가 표연히 앞에 와서  
 웃는 듯 쩡그리는 듯 사례는 듯 하직는 듯  
 몽롱이 잠을 깨어 정녕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다  
 수호\*를 급히 열고 꽃 수풀을 점검하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 담아  
 꽃다려 말 붙이니 그대는 한치 마소  
 세세연년의 꽃빛은 의구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동원의 도리화는 편시춘을 자랑 마소  
 이십 번 꽃바람의 적막히 떨어진들 뉘라서 슬퍼할고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 몸뿐이로세  
 봉선화 이 이름을 뉘라서 지어내고 일로 하여 지어서라

- 작자 미상, '봉선화가' -

- \* 차환 : 주인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젊은 계집종.
- \* 여공 : 부녀자들이 하던 길쌈질.
- \* 파사국 : 페르시아.
- \* 팔자미 : 몹시 성내어 얼굴을 일그러뜨렸을 때의 눈썹을 이르는 말.
- \* 수호 : 수를 놓은 휘장으로 가린 문.

【문12】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문13】㉠~㉣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경박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봉선화의 정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미화된 표현을 통해 정성스럽게 종이와 실로 손가락을 봉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 관용적 표현을 통해 봉선화 꽃물의 색보다 봉선화 꽃잎의 색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상반된 태도를 통해 화자와 봉선화와의 인연을 드러내고 있다.

【문14】화자의 봉선화에 대한 태도와 가장 일치하는 것은?

- ① 동작에 숨은 꽃이 척촉(郭柵)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페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 ②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 | 야 아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낭하여 줌 못 드리 호노라
- ③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④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홀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호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묻내 도하호노라.

【문15】<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붙여 쓸 수 없는 것은?

< 보기 >

- ㉠ 나는 그 책을 거의 다 읽어 간다.
- ㉡ 나는 영희에게 사과를 깎아 주었다.

용언은 그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뉜다. 본용언은 ㉠의 '읽어'처럼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해 주는 말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다. 반면에 보조 용언은 ㉡의 '깎다'처럼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자립성이 없어 단독으로 주어를 서술하지 못한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47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보조 용언은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런데 ㉡의 '주었다'처럼 단독으로 주어를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면 본용언 뒤에 또 다른 본용언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두 본용언은 띄어 쓴다.

- ① 철수가 농구를 하고 있다.
- ② 그녀는 가족의 빨래를 빨아 말렸다.
- ③ 그는 부모님을 여윈 슬픔을 이겨 냈다.
- ④ 그녀는 하루 종일 어머니 일을 도와 드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6~문19]

(가)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先王聖代에 노니와지이다

삭삭기 세물애 별해 나눈  
삭삭기 세물애 별해 나눈  
구은 ㉠밤 닛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有德호신 님물 여히와지이다

玉으로 蓮入고줄 사교이다  
玉으로 蓮入고줄 사교이다  
㉡마회 우회 接柱호요이다  
그 고지 三同이 꿰거시아  
그 고지 三同이 꿰거시아  
有德호신 님 여히와지이다

- 정석가(鄭石歌) -

(나)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넌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청산별곡(靑山別曲) -

【문16】(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열거의 방법으로 밝히고 있다.
- ③ (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 있다.
- ④ (나) 반복적인 여음구의 사용으로 운율적 효과를 얻고 있다.

【문17】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

작가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 ① ㉠밤
- ② ㉡마회
- ③ ㉣새
- ④ ㉤물아래

【문18】(가)의 시와 발상면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동지(冬至)스 돌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니불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펄리라.  
- 황진이 -
- ② 江山(강산) 조흔 景(경)을 힘센이 타톨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호 역 엇들쏜이  
眞實(진실)로 금(禁)호 리 업쓸씩 나도 두고 논이노라.  
- 김천택 -
- ③ 나무 토막으로 당답을 깎아  
젓가락으로 집어 벽에 얹히고  
이 새가 꼬끼오 하고 울며 때를 알리면  
어머님 얼굴은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늙으소서.  
- 문충 ‘오관산요’ -
- ④ 뫓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의 손에  
자시는 창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 홍량 -

【문19】㉦와 운율의 형성 방법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장개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박두진 ‘해’ -
- ② 강나루 건너서 / 밀밭 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 ③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 ④ 님은 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갓습니다. /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갓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20~문22]

<앞부분 줄거리> 유광역은 영남 합천 사람으로 글을 잘 지었다. 과거를 보는 사람을 대신하여 글을 써 주며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날이 갈수록 유광역의 이름이 나라 안에 퍼졌다. 이 소문을 들은 경시관과 경상 감사는 과거 시험에서 유광역의 글을 가려낼 수 있는지를 두고 내기를 한다.

경시관이 그 시권을 읽고서,  
“이게 필시 유광역의 시야!”  
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어구가 빼어난 곳에 여기저기 붉은 먹으로 점을 찍고서 이하(二下)의 등급을 매겨 장원으로 뽑았다. 또 시권 하나가 제법 잘 되었으므로, 이하의 두 번째로 뽑고, 또 시권 하나를 삼등으로 뽑았다. 시권 머리의 봉해 둔 곳을 뜯어 이름을 확인하니 어느 시권에도 유광역의 이름이 없었다. 경시관이 남몰래 알아보게 했더니, 모두 유광역이 남의 돈을 받아 써 준 것으로, 재화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글의 차이를 낸 것이었다.

경시관은 비록 이 사실을 알아냈지만, 감사가 자기를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유광역의 자백을 받아서 증거를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공식 문건을 합천으로 내려보내 유광역을 잡아 올리게 했다. 재판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 유광역은 군에서 구속되어 감영으로 송치될 판이었다. 그는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생각했다.

‘나야말로 과거 법규를 해치는 도적이니, 감영으로 가더라도 역시 죽을 것이다.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겠다.’

그는 밤에 친척을 모아 놓고 한껏 술을 마셔 댔다. 그리고는 몰래 강물로 나가 몸을 던져 죽었다. 경시관은 이 소식을 듣고는 애석하게 여겼다. 사람들 가운데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군자는 이렇게 논평했다.

㉠ “유광역은 과거 법규를 해친 죄과 때문에 죽은 것이니, 마땅한 일이다.”

매화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천하에는 팔지 못할 물건이 없다. 몸을 팔아 남의 노예가 되는 자도 있다. 심지어 가느다란 터럭과 형체가 없는 꿈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사고판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팔았다는 일은 없었다. 어찌 물건치고 다 팔 수 있거늘, 마음이라 하여 팔지 못하겠는가? 유광역 같은 자는 바로 그 마음을 판 자가 아니겠는가?

아! 누가, 천하에서 가장 천박한 매매를 글 읽는 자가 하리라고 생각하겠는가? 법으로 따지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은 죄’이로다.

- 이옥, ‘유광역전’ -

【문20】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인물의 전기(傳記)를 기록한 것이다.
- ② 높은 지위에 올랐던 실존 인물이 주인공이다.
- ③ 당대 시험 제도의 부조리함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인물과 관련된 일화와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21】 위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광역은 능력이 뛰어났으나 단명한 인물이다.
- ② 경시관은 시 작품을 보는 안목이 매우 탁월하다.
- ③ 유광역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판 인물이다.
- ④ 경시관은 글을 파는 유광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문22】 ‘군자’의 논평 ㉠과 ‘매화외사’의 논평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군자는 유광역의 죽음을 합당한 결정이라 생각하였고, 매화외사는 유광역이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 ② 군자는 유광역의 죽음이 당위적인 이유를 설명하였고, 매화외사는 유광역의 죽음이 우연적인 것이었음을 설명하였다.
- ③ 군자는 유광역의 죽음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고, 매화외사는 유광역의 죽음을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시켜 평가하고 있다.
- ④ 군자는 유광역의 죽음에 대해 간단하게 논평하였고, 매화외사는 유광역의 죽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따지며 논평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23~문24]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진다. 구리 동전을 예로 들어 보자. 동전에 열을 가하면 구리 원자들이 더 빨리 움직이면서 널리 퍼진다. 그리하여 구리 동전은 부피가 좀 더 늘어난다. 즉 밀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계속 동전을 가열하면, 결국 동전은 녹을 것이다. 액체 상태가 된 구리 동전의 밀도는 고체 상태 때보다 더 작다.

액체 상태가 된 구리를 계속 가열하면 그 분자들은 계속 퍼져 나가려 하고, 그 결과 밀도는 점점 작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순수한 거의 모든 물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만은 다르다. 10℃의 물이 있다고 하자. 이 온도에서 물은 액체 상태이다. 구리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물을 냉각시켜 보자. 물을 냉각시키면 물 분자들은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기대한 바대로 밀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 ㉠ ) 4℃에 이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이하로 온도가 내려갈수록 물 분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지기 시작한다. 0℃에서 물이 얼 때에는 물 분자들은 더욱 멀리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4℃의 물은 0℃의 물보다 밀도가 더 크다. 실제로 4℃일 때의 물은 다른 어떠한 온도의 물(액체 상태)보다 밀도가 크다. 그리고 어떤 온도의 물(액체 상태)도 고체 상태의 얼음보다 밀도가 더 크다. 얼음 덩어리가 유리컵 위에 떠다니거나 빙산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얼음이 될 때 물 분자들이 속이 빈 결정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일어난다. 얼음이 녹으면 이 결정 구조가 무너져 물 분자들이 서로 접근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속이 빈 결정 구조는 물의 온도가 4℃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물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 때문에 우리 주변의 세계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계절이 변할 때 호수나 연못에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겨울이 다가오면 기온은 내려간다. 호수 표면의 물도 온도가 내려가 밀도가 높아지므로 호수 아래로 가라앉고, 그 대신 아래쪽에 있던 물들이 호수 표면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4℃이하로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되면, 냉각된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호수 표면에 머문다. 그리하여 호수의 물은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한다. 다른 액체 물질들은 거의 아래쪽에서부터 얼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호수나 연못의 물은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물들은 기온이 0℃아래로 내려가더라도 계속 액체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표면의 얼음 층이 차가운 기온을 차단하는 벽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아주 얇은 연못을 제외하고 호수나 강에 있는 대부분의 물은 얼음 층 아래에서 액체 상태로 남아 있다. 덕분에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 B.E.짐머맨, ‘물의 기이한 성질’ -

【문23】 위 글에서 취하고 있는 논지 전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론과 실제의 대립 현상과 그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 ② 현상과 가설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 그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표면적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면적 의미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문24】 위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 ㉠ )에 들어갈 접속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나      ② 그리고      ③ 그러므로      ④ 따라서

【문2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그는 ㉠슬픔에 젖어 말을 잇지 못했다.
- 간호사는 환자의 팔뚝에 붕대를 ㉡휘감았다.
- 그 사이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왔다.
- 그의 집은 인근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집이다.

- ① ㉠은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품사가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뀌었다.
- ② ㉡은 접두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③ ㉢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관형사+명사’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명사+명사’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이다.